

전일동향

전일 대비 15.60원 하락한 1,408.50원에 마감

7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1,423.80원(15:30 기준) 대비 0.20원 상승한 1,424.00원(06:00 기준)에 개장했다. 국내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내놓은 달러 매도 물량이 환율 하락 흐름을 주도하며, 전일 대비 15.60원 하락한 1,408.50원에 종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8.4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92.01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24.00	1425.70	1407.30	1408.50	1420.10
	엔화	896.21	899.74	891.27	892.01	-
	유로화	1638.78	1642.73	1625.87	1627.36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58	-2.45	-6.74	-14.22
	결제환율(수입)	-0.25	-1.31	-4.53	-10.4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고용 둔화에...1,40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5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16.10, 15:30 기준) 대비 8.15원 하락한 1,429.9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고용 둔화에 따른 약달러 흐름으로 하락 전망한다. 미국 7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 밖의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미 연준의 금리인상 경계감이 일부 완화되며 금일 아시아장에서도 리스크온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금일 환율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여건이 매도 우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 가능성은 환율 하락폭을 확대할 전망이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가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원화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02.33 ~ 1415.33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8651.0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8.15원 ↓
	■ 美 다우지수 : 54036.93, +151.83p(+0.2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5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413 억원